



만만한게 인쇄업인가?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에게 인쇄업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하니 그저 답답할 따름이다.

이런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괴롭고 피곤한 일인데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 입법예고를 거친 후 법 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금지했던 의료기관들의 출판·인쇄·의료정보제공업의 허용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할 말 다하면서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분명 시계바늘을 뒤로 돌리는 행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알다시피 세계는 바야흐로 전문화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의료기관에서 엉뚱한(?) 인쇄업에 진출해서 어찌자는 것인지 딱한 노릇이다. 더욱이 이러한 계획이 의료기관에게 재정적 보탬을 주기위해 추진된다고 하니 할 말을 잃을 정도이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인쇄업체에게 발주하는 인쇄물을 자체에서 인쇄시설을 갖추고 생산하면 一石二鳥가 되지않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는 천만의 말씀이다.

채산성도 맞추기 힘들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병원의 대외 이미지도 흐려지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특히 국내의료시장의 개방을 앞두고 국내의료기관들이 전문성제고, 경영합리화, 시설현대화, 주5일제 근무에 따른 병원의 특성화 대책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쇄업까지 기웃거린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하겠다.

요즘 국내 인쇄업계는 생산능력이 남아도는 정도의 시설규모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병원에서 비록 대형시설은 아니더라도 인쇄시설을 도입하면 국내에는 그만큼의 유휴시설이 증가하는 셈이다.

그저 만만한게 인쇄업이고 불황때에는 동네 북 신세가 아닌지 모르겠다. 비용절감 대책이 나오면 인쇄물량 줄이기가 단골메뉴로 등장하고 인쇄요금을 올려야하는 실정을 잘 알면서도 거래처에서는 인쇄요금 조정을 요청하는 사례가 적지않다.

이와같이 인쇄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인쇄업 진출을 추진한다면 관련업계의 심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뿐만아니라 사회공익기관으로 존경과 함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의 본래 목적에 물음표를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시장경계원칙만을 내세워 의료기관의 인쇄업 진출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한걸음 나아가서 현존하고 있는 비과세단체, 국영기업, 국가기관 퇴직자 단체 등의 인쇄영업 행위도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비과세단체, 퇴직자단체 등의 인쇄업 영업행위가 재정수입에 도움을 줄지는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전문인쇄업계가 이들 때문에 골병(?)이 들고 있는 현실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조폐기능을 제외한 모든 인쇄물은 전문인쇄업계에 맡겨져야 한다는 것이 인쇄업계의 지배적인 여론이다.

(오세익·편집주간)

인쇄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인쇄업 진출을 추진한다면 관련업계의 심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뿐만아니라 사회공익기관으로 존경과 함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의 본래 목적에 물음표를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